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역사학습방안

-E.H. Carr의 역사인식과 신문문화사적 접근을 중심으로-

A Study on History Learning Method for the Improvement of
Historical Thinking : Based on E.H. Carr's Historical Awareness and
New Cultural History

김효철*

< 국문 초록 >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해 E.H.Carr의 역사인식과 신문문화사적 접근을 토대로 한 역사학습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E.H.Carr는 역사가의 임무가 과거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역사의 객관성을 강조했던 Ranke의 역사인식을 비판하고 역사는 과거 사실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신문문화사적 접근은 E.H.Carr의 역사인식을 보다 확장시키면서 단선적 역사관이 아닌 역사의 중층성과 다양성을 강조한다. 즉 과거 사실에 대한 다양한 역사해석의 가능성과 지배층의 역사만이 아니라 피지배층, 여성 등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대상들의 역사도 중시한다. 이 두 접근방식은 기존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암기위주의 역사교육을 지양하고 사고력을 중시하는 역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역사가 역사가의 해석이라는 것은 곧 보편타당한 진리와 사실을 습득하는 것처럼 역사적 사실을 암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역사학습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오히려 역사학습은 학생들이 여러 과거 사실과 역사가의 해석들을 토대로 자신의 관점으로 역사를 구성해나가는 역사적 사고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다. 당시 시대적 상황과 인물들의 생각 및 행동 등의 여러 정황적 증거를 토대로 맥락에 맞추어 구성하고, 기존의 텍스트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은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 시간 속에 있는 인간과 사회 연구를 통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접근이라는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E.H.Carr의 역사인식과 신문문화사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역사학습방안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주제어: E.H.Carr, 신문문화사, 역사적 사고력

I. 서론

교과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적절한 내용과 학습방법을 통하여 해당 교과와 본질을 이해하고, 그에 필요한 사고능력을 기르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교육에 있어서도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이나 학문에서 사고란 일반적으로 과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 지적활동을 가리킨다. 따라서 역사적 사고란 역사적 과제를 해결해 가는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특징적인 이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해 E.H.Carr의 역사인식과 신문화사적 접근을 토대로 한 역사학습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E.H.Carr는 역사가의 임무가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역사의 객관성을 강조했던 Ranke의 역사인식을 비판하고 역사는 과거 사실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신문화사적 접근은 E.H.Carr의 역사인식을 보다 확장시키면서 단선적 역사관이 아닌 역사의 중층성과 다양성을 강조한다. 즉 과거 사실에 대한 다양한 역사해석의 가능성과 지배층의 역사만이 아니라 피지배층, 여성 등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대상들의 역사도 중시한다. 이 두 접근방식은 기존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암기위주의 역사교육을 지양하고 사고력을 중시하는 역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역사가 역사가의 해석이라는 것은 곧 보편타당한 진리와 사실을 습득하는 것처럼 역사적 사실을 암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역사학습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오히려 역사학습은 학생들이 여러 과거 사실과 역사가의 해석들을 토대로 자신의 관점으로 역사를 구성해나가는 역사적 사고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다. 당시 시대적 상황과 인물들의 생각 및 행동 등의 여러 정황적 증거를 토대로 맥락에 맞추어 구성하고, 기존의 텍스트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은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먼저 E.H.Carr의 역사인식과 신문화사에서 주장하는 ‘역사에 대한 다양한 개념 탐구’와 신문화사의 연구방법론에서 초등학교 역사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역사가 영원불변한 진리라는 인식을 전환시키고 학생이 역사를 질문의 대상으로 삼고 역사학습의 수동적 존재에서 능동적 존재로의 전환을 모색하여 역사적 사고의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으로 시간 속에 있는 인간과 사회 연구를 통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접근이라는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Ⅱ. 역사적 사고력의 개념과 특성

1. 역사적 사고력에 대한 두 견해의 입장

역사적 사고력 육성을 역사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널리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고력의 정의가 모호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시킴에 있어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역사적 사고력을 나름대로 여러 문헌들을 조사하여 종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사고의 개념은 역사의 본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역사의 본질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역사입장과 관념론적인 역사입장에 따라 달라지므로 역사적 사고도 역사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역사적 사고를 보는 두 견해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적인 사고를 역사 교과나 역사 교재에 적용하였을 때 역사적 사고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이를 영역중립인지이론(domain neutral cognition theory)이라고 하는데,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이 대표적으로 적용된다.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역사교과에서도 역사적 사고력을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교육학 일반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육 목표나 교수 모델을 역사교육에 적용시켜보고자 하는 경우이다(양호환 외, 2001).

다음은 각 교과에는 고유한 사고의 형태가 있으며 역사적 사고도 다른 교과의 사고 형태와는 구별된다는 입장이 있다. 이를 영역고유인지이론(domain specific cognition theory)라고 하는데, 피아제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되었다. 반론의 근거는 사고인 경우 모든 교과에 전이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영역고유인지이론에 따르면 역사적 사고는 상황 의존적이고 지식 의존적인 것으로 다루는 지식의 내용에 의존하는 사고이다. 그러므로 지식 영역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사고형태에 따라 교수와 학습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송상현 외, 2009).

이상과 같이 역사적 사고에 두 견해 중에 필자는 영역고유인지이론(domain specific cognition theory)이 역사적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더욱 합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역사적 사고는 다른 교과에서의 사고와는 달리 시간을 매개로 한다. 즉 과거 속에 있는 인간과 사회에 대해 연구해야하기 때문에 비판분석적 사고 못지 않게 상상적 사고를 통해 맥락을 구성해야 하는 내러티브적 사고를 중시해야 하는 것이다. 상상력을 매개로 한 내러티브적 사고의 강조는 다른 교과와는 매우 다른 특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내러티브적 사고는 과거 사실에 대해 분석하면서 증거가 명확치 않은 부분은 역사적 상상력을 활용하여 빠져

있는 맥락을 채워 넣어 가는 과정이다. 이 때 사건의 개연성을 토대로 가장 그럴듯한 의미를 찾아내는 사고로서 이는 연구자나 학습자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2. 역사적 사고력의 개념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역사학습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타당한 내용을 선정하며,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역사적 사고력과 관련된 역사 학습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 사고력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하위범주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역사적 사고력을 역사가의 사고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역사 지식을 이용하여 역사 문제에 가설을 산출하거나 해결방안을 찾으면서 역사이해에 도달하려는 의도적이고 복합적인 정신활동을 수행하는 인지적 조작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김한중 외, 2005). 그리고 역사적 사고력의 범주를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으로 세 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3. 역사적 사고력의 영역 및 특성

가. 역사적 탐구력

1) 역사적 탐구력의 의미

역사적 탐구력이란 어떤 의문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 해답을 찾아내기 위해 체계적으로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역사적 탐구력은 기본적으로 가설, 연역, 귀납, 고증, 새로운 법칙의 창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신뢰할 만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

2) 역사적 탐구력의 종류(양호환 외, 2001)

① 문제의 파악능력 : 역사의 본질과 주제의 성격에 비추어 다루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이 왜 다루어야 할 가치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능력이다.

② 정보의 수집능력 : 학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조사와 답사, 관찰, 견학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는 능력이다.

③ 자료의 취급능력 : 역사적 자료를 해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분석, 종합, 비교하는 능력이다.

④ 결과의 적응능력 : 자료의 검증을 통하여 각 요소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여 일반화하고 추론 등을 통하여 그것을 새로운 역사적 사실에 적용하는 능력이다.

나. 역사적 상상력

1) 역사적 이해방법의 특징

역사학이 인간의 행위를 다룬다고 할 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 행동 및 그 결과를 다루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즉 정신에 더 관심을 둔다는 의미이다. 역사가는 단순히 물리적 사실과 제도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영역, 즉 그 안에서 생활하는 인간, 그들의 믿음, 사고, 의지, 행위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는다. 따라서 역사적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 활동의 내면에 대한 이해라 할 수 있다. 즉 역사의 이해방법은 자연과학적 이해의 방법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역사적 상상력의 의미

지나간 과거를 완전히 복원하고 그 당시의 사람의 생각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적 사고란 항상 역사적 증거를 토대로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역사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 역사적 증거라는 것이 절대적인 진실인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사료나 증거라는 것은 보통 전대의 역사가가 남긴 것에 불과한데 그 역사가의 관점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를 재구성에 있어서 증거가 없어 상상력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역사적 상상력이다. 역사적 상상력이란 역사적 사료에 빠져 있거나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않은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다.

다. 역사적 판단력

1) 역사적 판단력의 개념

역사적 판단력은 역사적 상상력의 영역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상상력과 구분되는 특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고력의 가장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역사 연구나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중요한 하위 범주이다(김한중 외, 2005). 역사적 판단력은 역사적 논쟁이나 딜레마에 빠졌을 때 합리적 판단을 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능력으로 역사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역사적 판단력을 학습목표로 삼을 경우 판단에 이용되는 증거와 적절성, 다른 가능한 해석의 존재, 공부하는 시대의 가치와 현재 가치간의 차이 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야 한다.

2) 역사가가 역사 연구 과정에서 역사적 판단력을 내리는 과정

역사가는 역사 연구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판단을 한다. 먼저 어떤 문제가 연구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연구를 위한 여러 사료 가운데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판단하며, 사료간의 연결성 여부를 판단한다. 즉 자료를 해석하고, 증거에 비중을 두며, 선입관을 찾아내고, 추론을 하며, 정보에 따라서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할 때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김한중 외, 2005)

역사는 인류와 그들의 문제, 행동의 동기 및 원인과 결과에 대해 판단한다. 이것이 곧 자연과학과 다른 역사학의 본질로, 이런 요구는 다른 어떤 과목보다 자연스러운 판단을 요구하고 진전시킨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인지할 수 있는 배경 설명과 비판, 합리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수반될 때 가능하다. 현명한 판단은 적절한 질문이 있을 때 가능하고, 적절한 질문은 역사적 사고로 훈련된 상상력에서 나온다. 역사가는 과거의 사실을 기술할 뿐만 아니라 설명과 해석을 통해 중요하고 유의미한 판단을 하게 된다.

또한 역사는 다른 시대와 당시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포함하는데, 그 가운데 편견(bias)을 알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편견을 파악한다는 것은 문헌에 저술된 역사적 상황과 저자의 동기, 감정적·비유적인 언어를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문헌에 기록된 많은 단어들은 객관적이지 않고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시기에 살았던 사람의 생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의미와 용법에 따른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융화된 문화코드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야 말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므로 당시의 문화를 잘 이해한다면 과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의 분석이 용이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문화사적인 접근 방식에 해당되는 것이고 신문화사적인 접근 방식과 역사적 사고력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Ⅲ. E.H.Carr의 역사인식과 신문화사 접근을 중심으로 한 역사인식

1. E.H.Carr의 역사인식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역사에 대한 정의는 E.H.Carr가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의 제1장 <역사가와 그의 사실>에서 말한 “현재와 과거의 끊임 없는 대화”라는 것이다. 역사가의 임무는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던 랭케를 비판하면서 E.H.Carr가 강조했던 것은 역사인식은 역사가가 현재적 인식 관심에 따라 과거와의 대화를 시도하면서 시작되며, 그 대화의 결과로 성립하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다(김기봉, 2000). E.H.Carr는 이러한 역사의 정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역사적 사실이란 무엇인가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역사적 사실’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 제1장 ‘역사가와 그의 사실’에서 세 개의 사실을 구분하였다. 첫 번째 사실은 ‘과거의 사실(fact of the past)’이고, 두 번째 사실은 ‘과거에 대한 사실(fact about the past)’이며, 세 번째는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이다.

먼저 ‘과거의 사실’이란 과거에 일어난 사실 그 자체를 말한다. 그 다음으로 ‘과거에 대한 사실’이란 사료상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다. 당대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역사가는 ‘과거의 사실’을 직접 접할 수 없고 단지 사료가 말하는 ‘과거에 대한 사실’에 기초를 하여 역사를 쓴다. 끝으로 ‘역사적 사실’이란 역사가가 역사를 씀으로써 성립하는 사실이다. 사료에 나와 있는 ‘과거에 대한 사실’ 전부가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역사가는 현재적 관심에 따라 ‘과거에 대한 사실들’ 가운데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것들만을 ‘역사적 사실’로 선별해 하나의 일관된 역사 이야기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E.H.Carr는 역사가의 해석 이전에 이미 ‘과거의 사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과거에 대한 사실’이 ‘역사적 사실’로 전환할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할 수에 없다는 역사인식에서의 모순을 변증법적으로 지양할 목적으로 역사를 ‘현재와 과거의 대화’로 정의하였다(김기봉, 2000)

이러한 E.H.Carr의 역사인식은 역사가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역사교육에 있어서 역사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나름대로의 역사적 판단과 해석을 해야 하는 역사적 사고의 중요성이 부각시킨다.

2. 신문화사 접근을 중심으로 한 역사 인식

가. 신문화사의 등장 배경

E.H.Carr는 ‘역사를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현재에 있는 역사가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분석함으로써 역사가 성립된다는 개념이다. 결국 E.H.Carr는 역사적 사실은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역사가의 가치관과 연구방법에 따라 같은 역사적 사실에 역사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현재주의적 역사관을 표방하였다.

신문화사는 이러한 E.H.Carr의 역사관에는 동조를 하지만 E.H.Carr의 역사관에서 보다 발전적인 논리를 제기한다. E.H.Carr가 제기하였던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에서 정작 말을 직접 하는 것은 역사가이지 지나가 버린 과거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가가 일방적으로 과거에 대해 분석하면서 결론을 도출해버리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결국 역사의 정립이 전적으로 현재에 살고 있는 역사가의 역할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문화사는 E.H.Carr의 정의를 더욱 발전시켜 ‘역사란 현재의 문화와 과거의 문화 사이의 대화’라고 재정의 하게 된다(김기봉, 2000)

그렇다면 신문화사는 왜 문화사적인 전환을 주장하는가?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과거인들과의 진정한 대화는 과거인들이 당시 그 삶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 중요한 것을 성취했는지를 결정하는 그들 삶의 의미체계를 이해하는 것에 출발해야 한다. 우리가 직접 만나볼 수 없는 과거인들에게도, 지금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나름대로 세계를 이해하며 또 삶의 의미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데 작용했던 가치체계들 즉 문화가 있었다. 과거인들의 이러한 가치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역사가는 결국 시대착오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역사서술의 문화사적 전환을 주창하는 역사가들은 이러한 시대착오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그들은 과거와의 대화를 ‘문화’라는 코드를 통해서 열고자 한다(안병직 외, 1998)

요컨대, 신문화사는 문화적 현상에 담겨 있는 역사적 의미를 해명하고자 노력함으로써 문화를 역사의 중심적인 연구대상으로 부각시키고 더 나아가 현재와 과거의 대화 코드를 문화로 설정함으로써 문화를 통해서 역사를 보는 새로운 연구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문화사적 접근은 문화를 코드로 삼아 당시 시대적 상황과 인물들의 생각 및 행동 등 여러 정황적 증거를 토대로 맥락을 구성하고, 기존의 텍스트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층위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중시한다. 또한 E.H.Carr의 역사인식을 보다 확장하여 역사의 중층성과 다양성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역사 해석의 가능성과 다양한 계층과 사회, 사람들의 ‘역사들’이 중시된다. 이는 역사교육에 있어서 역사적 사고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다각적이고 중층적인 역사인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나. 신문화사의 역사 인식 방법

1) 아래로부터의 역사 구현 : 에드워드 톰슨

에드워드 톰슨의 저작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은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문제의식을 가진 역사가들에게는 이미 하나의 고전이 되었다. 톰슨은 18세기 민중의 집단적 행동의 원천을 마르크스가 이야기 했던 근대적 계급의식이 아니라 전통적 가치관을 구현하는 공동체적 관념이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민중의 공통된 경험이 하나의 집단적 형태의 운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에너지를 민중문화에서 발견하였다. 톰슨은 우리가 성공한 자만을 기억함

으로써 잊어버렸던 ‘막다른 골목, 패배한 싸움들, 그리고 패배자들’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것을 그의 역사 서술의 목표로 삼았다. 톰슨이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통해서 승자의 이야기로서의 역사를 지양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중의 삶의 방식과 문화 속에서 과거에 잃어버렸던 역사의 가능성을 재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역사 인류학적 역사 서술 : 로버트 단턴, 나탈리 데이비스

로버트 단턴은 ‘고양이 대학살’, 나탈리 데이비스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역사를 인류학적으로 서술한다. 이 두 학자는 궁극적으로 텍스트의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는 ‘역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석을 하고 그를 통한 또 다른 텍스트의 창작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가는 사료의 언어 안에 숨어 있는 과거적 현실의 다양한 가능성을 재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료적 실증을 넘어서는 로버트 단턴과 나탈리 데이비스의 역사서술은 역사가들로 하여금 사료의 언어가 구성하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역사적 실재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사료가 불충분함으로 보충하기 위해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하고 그림으로써,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역사적 사실들을 이야기체 형식으로 빌어 표현한다.

둘째, 역사가들이 전념해야 하는 것은 일어났던 사건 그 자체를 서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실이 발생할 수 있었던 배경을 이룬 당시의 망탈리테를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일이다.

셋째, 과거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역사가는 자기 시대의 울타리를 넘어 다른 시대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사가에게 그의 시대가 설정하는 사고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과거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역사적 상상력이다.

3) 미시사적 역사 서술 : 진즈부르그

미시사(microhistory)란 한마디로 ‘작은 역사의 이야기’이다. 이는 연구의 관심을 사회의 전반적 구조나 사회 변화의 거대 과정에서 작은 것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종래의 역사 서술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을 발굴해내고자 하는 역사 서술이다(곽차섭, 2000). 우리는 작은 것 혹은 일상적 현상에서 커다란 연관관계나 본질적인 구조들을 발견해 낼 수 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르 봐 라뒤리가 말하듯이 하나의 모래알에서 세계를 발견하거나 하나의 물방울에서 대양을 볼 수 있는 인식의 눈이다. 역사에서 작은 것의 소중함은 거기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거나, 때로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 변화의 연쇄작용이

역사의 큰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미시사들의 작업은 역사의 뒀안길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역사서술이 거이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던 과거인들의 삶의 자취를 찾아내어 그 역사적 의미를 되찾아 주는 것이다.

다. 신문화사 역사 인식 방법의 특징

첫째, 신문화사는 역사의 거대한 과정 속에서 매몰되거나 지배구조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복원시키기 위해 역사 서술의 문화사적인 전환을 시도한다.

둘째, 신문화사는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완결된 해석과 관점을 제시하기 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열어놓기를 원한다.

셋째, 진즈부르그의 말대로, 어떤 풍경을 그리는 화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원근법을 결정하는 하나의 관점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그런 범위에서 그는 선택했던 관점과 공존하고 있는 다른 수많은 관점들을 인식에서 제외시킨다(Keith Jenkins, 1999). 따라서 그 화가는 그 풍경을 화폭에 보이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의 그림은 풍경의 다른 정경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 간의 영원한 불일치는 인간 언어의 운명이다. 이런 인간 언어의 한계를 끊임없이 자각하면서 역사를 쓰는 신문화사가들은 이전의 역사학자들이 성취하고자 했던 방식대로의 전체사를 추구하지 않는다. 결국 신문화사는 기존의 역사서술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운동으로 존재한다.

넷째, 신문화사는 근대에까지 이르는 역사의 과정을 반성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역사학의 현 단계에서의 지배적인 흐름이다.

IV. E.H.Carr의 역사인식과 신문화사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역사학습방안

1. E.H.Carr의 역사인식과 신문화사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다양한 뜻 탐구 활동'

가. 학습모형

<표 1> E.H.Carr의 역사인식과 신문화사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다양한 뜻 탐구 활동' 학습모형

1. 문제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상황 제시 ● 학습문제 인식
2. 가설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가설 탐색 ● 가설 설정
3. 문제탐색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의 수집 ●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활동 실시
4. 가설검증 및 분석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증거자료의 분석 ● 설정된 가설의 검증 활동
5. 결론 및 일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검증 및 분석활동을 통한 결론 도출 ● 도출된 결론의 정리

먼저 문제인식단계에서는 문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하여 아동들이 탐구해야 할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본시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가설설정단계에서는 제시된 문제에 대하여 아동들 나름대로의 하나의 해답을 찾는 단계이다. 문제탐색활동 단계에서는 아동이 나름대로 설정한 가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 활동을 한다. 가설검증 및 분석활동단계에서는 가설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집한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입증하는 단계이다. 결론 및 일반화단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활동을 정리하여 결론을 내리고 이를 일반화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순히 개념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탐구과정으로 통해서 개념이 형성되도록 학습과정을 구성하였다.

<표 2> E.H.Carr의 역사인식과 신문화사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다양한 뜻 탐구 활동' 내용

<p>1. '역사의 다양한 뜻 탐구 활동'을 통해 '역사'라는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역사관의 올바른 정립을 도모한다.</p>
<p>가. E. H. Carr의 역사인식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다양한 뜻 탐구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거로서의 역사'의 개념 분석을 통한 역사의 다양한 뜻 탐구활동 2)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개념 분석을 통한 역사의 다양한 뜻 탐구활동 3) '역사가의 해석으로서의 역사'의 개념 분석을 통한 역사의 다양한 뜻 탐구활동 4)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로서의 역사'의 개념 분석을 통한 역사의 다양한 뜻 탐구활동
<p>나. 신문화사(New Cultural History)접근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다양한 뜻 탐구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역사(history)에서 역사들(histories)로의 전환'을 매개로 역사의 다양한 뜻 탐구활동 2) '역사의 거시적 접근에서 미시적 접근로의 전환'을 통한 역사의 다양한 뜻 탐구활동

나. E.H.Carr의 역사인식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다양한 뜻 탐구 활동’ 전개

1) 목적

E.H.Carr는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라는 역사이론서로 유명한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이다.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비친 Carr의 역사관은 ‘역사는 역사가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 시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역사해석은 불변의 객관적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가 그 사실을 어떻게 수용하는냐에 달라진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역사가가 현재적 관심에 따라 과거와의 대화를 시도하면서 시작되며 그 대화의 결과로 성립하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방식이다. Carr는 ‘역사’의 개념을 고정 불변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시대에 따라, 역사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현재주의적 역사관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주의적 역사관은 ‘역사’에 대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당성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 역사를 서술해야한다고 생각했을 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는 타당성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다양한 역사해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역사교육에 있어서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E.H.Carr의 역사관 분석을 통해 개발한 ‘역사의 다양한 뜻 탐구활동’을 적용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와 더불어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학습 내용

<표 3> E.H.Carr의 역사인식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다양한 뜻 탐구 활동’ 지도 계획

주제	차시	지도내용	비고
과거로서의 역사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와 ‘역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기 ● ‘과거로서의 역사’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기 	
기록으로서의 역사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기록’과 ‘역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기 ●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기 	
역사가의 해석으로서의 역사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가의 역할에 대해 바로 알기 ● 누구나 나름대로의 역사가가 될 수 있음을 알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로서의 역사	4-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역사가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기 ●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의 의미 파악하기 	

3) '과거로서의 역사' 교수학습과정안

시간 활용	재량활동	수업형태	탐구 학습	차시	1/5
본시 주제	과거로서의 역사	학습자료	교사 : PPT, OHP 아동 : 사회교과서, 사회과탐구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와 '역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 수 있다. ● '과거로서의 역사'의 의미에 대해 알 수 있다. 				

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은 '과거'에 찍은 사진임을 상기시킨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과거'라는 개념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5	PPT
	문제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들에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거와 역사에 대해 상기시킨 후 과거와 역사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도록 한다. 		
	학습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와 '역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 '과거로서의 역사'의 의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판서
가설 설정	가설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와 역사의 관계를 고려하여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도록 한다. 	5	모둠별로 가설 설정
문제탐색활동	문제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겪어온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생각나는 데로 모두 나열해보기 ◎ 자기가 겪은 일을 나열하면서 어려운 점을 모둠별로 토의하기 ◎ '이런 것은 역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하기 	10	
가설검증 및 문제분석활동	가설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 사실(역사)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에 관해서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아는 대로 나열해보기 ◎ '역사'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와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기 ◎ 각 모둠별로 설정한 가설 증명하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별로 세운 가설과 탐색한 결과가 일치하는지 토의하기 -가설과 탐색한 결과가 일치하다면 그에 대한 설명과 이유를 제시하고, 가설과 탐색한 결과가 다르다면 그에 대한 설명과 이유를 제시하기. 	15	
결론 및 일반화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와 역사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하기 ◎ '과거로서의 역사'의 의미 정리하기 ◎ 활동 후 느낀 점 쓰고 발표하기 	5	

4) '과거로서의 역사' 교수학습전개의 실제

'과거로서의 역사'의 개념분석을 통한 역사의 다양한 뜻 탐구활동에서는 아동들이 '과거'와 '역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여 '역사'에 대한 개념 인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의 내용은 실제 활동을 한 후 나타날 수 있는 학생의 보고서를 예시한 것이다.

- 탐구할 문제 : 과거와 역사는 과연 같은 뜻인가?
- 가설설정 : 과거와 역사는 같은 말이 아니다.
- 문제 탐색 활동
 1. 자신이 겪어온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나열하기 : 화장실에 가장 좋아라는 책을 빠뜨린 것, 강아지와 논 것, 어렸을 때 엄마 모르게 부엌에서 참기름, 식용유, 소금, 설탕 등 몽땅 어질러 놓다가 엄마에게 걸려 혼난 것, 할아버지가 입원해있는 서울 병원에 간 것, 자전거를 타다가 차와 부딪힐 뻔 한 것 등
 2. 자기가 겪은 일을 나열하면서 어려운 점을 토의하기
 - ① 모든 것을 기억하려니 짜증이 났다.
 - ② 너무 많이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 ③ 기억을 하려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3. '이런 것은 역사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토의하기 : 위대한 업적을 쓰여진 것이 역사다, 예전의 중요한 일들, 유명한 위인들의 업적 등
- 가설 검증 및 문제 분석 활동
 1. 역사적 사실(역사)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에 관해서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아는 대로 나열하기 : 임진왜란, 항주대첩, 살수대첩, 갑오개혁, 강화도조약 등
 2. '역사' 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와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 ① 공통점 : 역사와 과거는 모두 시간이 지나간 것이다.
 - ② 차이점 : 과거는 지금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다. 즉 시간이 지나간 것은 모두 과거다. 반면 역사는 과거 중에서 중요한 것이 기록된 것이다.
- 결론
 1. 결론
 - ① '과거로서의 역사' 는 역사를 현재에 이르는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과거와 역사는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② 과거와 역사는 둘 다 시간적으로 지나간 일들이라는 점에서는 같을지 모르지만 과거의 사건들 모두를 역사라고 보기에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예를 들어 철수가 어제 화장실에 갔다는 분명히 과거이지만 이런 것을 역사라고 부르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② 과거와 역사가 같은 것이라면 역사도 과거처럼 바닷가의 모래의 숫자와 같이 수백만 수천만의 사실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과거와 역사를 같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과거와 역사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2. 느낀 점 : 우리는 평소 '과거' 와 '역사' 의 차이점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과거와 역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고민해보면서 과거에 일어난 일 전부다 역사가 될 수 없을 알 수 있었다. 생각해보니 이제까지 '역사' 하면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고 역사책에 쓰여진 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우리 알고 있는 '역사' 라는 뜻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끔 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다. 신문화사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다양한 뜻 탐구 활동' 전개

1) 목적

신문화사는 과거 정치위주의 역사와 사회구조를 중심으로 한 전체사의 그늘아래 잊혀졌던 다양한 역사들의 발굴을 목적으로 등장한 역사관이다. 신문화사는 다음과 같은 역사관을 표방한다. 첫째, 하나의 고정불변의 역사적 해석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해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둘째, 정치 및 사회구조 중심의 거시적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등장하여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역사서술로 구현하는 미시적 역사를 지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신문화사의 역사관은 E.H.Carr의 역사관과 상당히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문화사가 E.H.Carr의 역사관과 다른 점은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의 정의를 '역사란 현재의 문화와 과거의 문화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서술에 있어서 '문화'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를 중시하는 이유는 진정한 의미로서 과거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인들이 당시 그 삶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어떤 방식으로 그 중요한 것을 성취했는지를 결정하는 그들만의 삶의 의미체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이 삶의 의미체계가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문화이다. 그러므로 과거인의 문화를 잘 분석해야만 이 역사를 제대로 서술할 수 있다고 신문화사는 주장하고 있다.

신문화사의 역사관 분석을 통한 역사의 다양한 뜻 탐구활동에서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역사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과 과거인의 삶의 체계가 승화된 문화를 통해서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과거 사건에 대해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학습 내용

<표 4> 신문화사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다양한 뜻 탐구 활동' 지도 계획

주제	차시	지도내용	비고
'역사'에서 '역사들'로의 전환	1-2/4	● '역사'와 '역사들'의 차이점에 대해 알기 ● 과거 사실에 대한 다양한 역사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기	
역사의 거시적 접근에서 미시적 접근으로의 전환	3-4/4	● 일반 평민들의 평범한 삶과 관련된 역사도 사회주도 세력의 역사 못지않게 역사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이해하기	

3) '역사에서 역사들로의 전환' 교수학습과정안

시간 활용	재량활동	수업형태	탐구 학습	차시	1-2/4
본시 주제	역사에서 역사들로의 전환	학습자료	교사 : PPT, OHP 아동 : 사회교과서, 사회과탐구		
학습 목표	● 과거 사실에 대한 다양한 역사해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과거의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사람들이 각각 처한 입장에 따라 그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인식	동기유발	● '징기즈칸'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징기즈칸에 대해 역사적 판단 내려보기	5	PPT
	문제인식	●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기		
	학습문제	● 과거 사실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 과거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상상해봅시다.		판서
가설 설정	가설설정	● 하나의 과거사건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5	모둠별로 가설 설정
문제탐색활동	문제탐색	● 제주도 고성리에 있는 항몽 유적지와 삼별초의 난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조사활동	20	
가설검증 및 문제분석활동	가설검증	● 탐라국이 고려에 편입되는 과정에 대해 조사하기 ●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항몽유적지, 삼별초의 난과 관련된 역사와 다르게 역사적 해석 해보기. ● 각각의 입장에 따라 항몽유적지와 삼별초의 난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상해보는 활동하기 : 고려정부군의 입장, 삼별초군의 입장, 제주도민들의 입장	40	
결론 및 일반화	결론	● 하나의 과거사건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기 ● 활동 후 느낀 점 쓰고 발표하기	10	PPT

4) ‘역사에서 역사들로의 전환’ 교수학습전개의 실제

‘역사에서 역사들로의 전환’의 개념분석을 통한 역사의 다양한 뜻 탐구활동에서는 아동들에게 하나의 과거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음과 실제 그 사건의 주인공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역사적 관점이 있을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학습활동이다. 본 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다양한 역사적 해석을 해봄으로써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의 내용은 실제 활동을 한 후 나타날 수 있는 학생의 보고서를 예시한 것이다.

● 탐구할 문제

- ① 과거 사실에 대한 다양한 역사 해석이 존재하는가?
- ② 과거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상상해보자.

● 가설설정 : 하나의 과거사건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 문제 탐색 활동

제주도 고성리에 있는 향몽 유적지와 삼별초의 난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조사해보기<향몽유적지>

- 17 소재지 :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1126-1번지 일대
- 27 지칭 번호 : 사적 제396호
- 37 유적의 형성시기 : 1270년 - 1273년
- 47 유적의 의의

- ① 향몽유적지는 고려 정부가 몽고에 항복하는 것에 반대한 삼별초군이 진도에서 몽고에게 지자 근거지를 제주도로 옮겨 마지막으로 몽고와의 일전을 버리기 위해 쌓은 대몽항쟁의 근거지였다.
- ② 향몽유적지에 있는 향파두성은 삼별초의 본부의 역할을 한 곳이었고 삼별초는 몽고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제주도 해안을 따라 환해장성을 구축하는 등 방어시설 확충에 힘을 쏟았다.③ 1973년 6월 몽고군과 고려 정부군이 삼별초의 근거지인 향파두성을 점령함으로써 대몽항쟁(몽고에 대항하여 싸운 것)은 끝을 맺게 된다.

57 유적의 형태 : 향파두성은 외성(바깥성)과 내성(안쪽 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성은 흙으로 쌓은 토성이고 내성은 둘레 700m 정도의 석성(돌로 만든 성)이다.

● 가설 검증 및 문제 분석 활동

1. 탐라국이 고려에 편입되는 과정
- ① 탐라는 고려초기 때까지도 고려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았다. → 탐라의 왕과 왕자가 제주를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되 탐라의 왕을 고려의 왕이 단속을 하였다. ※ 물론 고려 이전에도 삼국시대에는 백제에게 통일신라시대에는 신라에게 간접적인 지배를 받았다.
- ② 고려의 중기(12세기)에 들어서서 고려는 탐라국을 고려의 하나의 행정구역인 탐라현(오늘날의 제주도)으로 편입하였다. → 고려로부터 현령(오늘날의 도지사)이 파견되어 제주를 다스리게 됨.

③ '탐라'의 명칭을 '제주'로 바꿈(1223년). → 독립국의 명칭이었던 '탐라'를 '제주'로 바꿈으로써 탐라는 완전히 고려의 일개 지방으로 전락하였음을 의미.

④ 고려에 편입된 탐라의 주민들은 자주 반란을 일으킴. → 현령(도지사)이 탐라 주민들에게 지나친 세금납부를 강요한 관계로 많은 반란이 탐라에서 일어남.

2. 항몽유적지와 삼별초와 관련되어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

고려정부가 몽고와 화친을 맺기로 결정 → 이에 반발한 삼별초군은 진도에서 새로이 정부를 수립하여 고려정부와 몽고에 대항하기로 함 → 고려정부군과 몽고의 연합군에 의해 진도가 점령되자 삼별초군은 제주로 이동 → 제주에서 제주주민들과 합세하여 항파두성을 세워 고려정부군과 몽고군에게 대항하기로 함 → 고려정부군과 몽고군의 공세에 이기지 못하고 삼별초군은 항복함

3.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항몽유적지, 삼별초의 난과 관련된 역사와 다른 역사적 해석

① 주장 : 삼별초군이 제주도로 들어왔을 때 제주주민들은 삼별초군이 항파두성을 세울 때 도움을 주었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과연 제주주민들이 진심으로 삼별초군을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② 근거 : 제주(탐라)는 고려 초기때까지만 해도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았고, 탐라현으로 복속이 된 후로도 고려정부에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삼별초군이 제주에 들어와서 조용히 살고 있는 제주를 전쟁터로 만드는 것을 좋아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4. 제주에서 삼별초군과 고려정부군, 몽고군과의 싸움이 일어날 당시의 각각의 입장 상상해보기

1) 고려정부군 : 고려왕을 비롯한 고려정부군은 삼별초군이 최씨정권을 보호하던 군대였으므로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어렵게 무신정권의 지배에서 벗어난 마당에 삼별초군을 그대로 놓아두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2) 삼별초군 : 자신들이 보호하던 최씨정권을 무너뜨린 현재의 고려정부군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30여년 동안 몽고군에게 항복하지 않고 열심히 싸웠는데 이제 와서 몽고군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3) 제주주민들 : 제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삼별초군이든 고려정부군, 몽고군이든 똑같이 육지에서 온 이방인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조용히 제주 주민들끼리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터가 된 것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이다. 삼별초군이 항파두성을 짓는데 제주 주민들이 도움을 준 것은 도와주고 싶어서라기 보다는 삼별초군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결론

1. 결론

① 과거 사실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소직 하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역사적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② '역사가 아니라 역사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과거 사실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한 역사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과거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자신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2. 조사 후 느낀 점 : 항몽유적지는 이번 수학여행 때뿐만 아니라 4학년 때에도 다녀왔던 곳이다. 거기에서 설명하시는 안내원도 삼별초군이 몽고군에 대항하여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말밖에 듣지 못했고 물론 나로서도 거기까지밖에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분명히 과거에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사건에 처한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과 하나의 과거 사건에 대해 다르게 역사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다. 이제부터는 모든 사실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공부해야할 것 같다.

2. 신문화사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역사학습방안

가. 신문화사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역사학습방안 지도 계획

<표 5> '신문화사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역사학습' 지도 계획

주제	차시	지도내용	비고
우리 모두 역사탐정이 되자	1-3 /12	● 실마리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추론하는 역사탐정 활동진개 실마리 대상 : 고인돌, 단군신화	
두껍게 역사를 읽어보자	4-6 /12	● 과거 일반 평민들의 일상생활 분석 활동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구현하기 분석 대상 : 제주의 여성	
다른 눈으로 역사를 읽어보자	7-9 /12	● 기존의 역사서술을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기 활동을 통한 역사적 사고력 기르기 분석 대상 : 신라의 삼국통일, 모내기법, 최승로의 시무 28조	
과거 당시 상황을 상상해보자	10-11 /12	● 역사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역사현실 재구성 학습을 통한 역사적 사고력 기르기 재구성 학습 : 역사신문 만들기	

나. 신문화사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역사학습방안의 실제

1) 실마리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추론하는 역사탐정 활동진개<우리 모두 역사 탐정이 되자>

가) 목적

실마리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추론하는 역사탐정활동은 작은 역사적 단서를 분석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구성하는 학습활동이다. 설록 흠즈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단서들을 종합해서 사건의 전말을 구성하듯이 아동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역사적 단서를 분석함으로써 역사적 사실들을 알아내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본고에서는 실마리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다양한 역사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실마리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추론하는 역사탐정 활동의 전개

1) 학습모형

<표 6> 실마리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추론하는 역사탐정활동 학습모형

사전 학습	문제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상황 제시 ● 학습 문제 인식
	주제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주제 선정
	가설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가설 탐색 ● 가설 설정
	자료수집 및 문제탐색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의 수집 ●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활동 실시
본학 습	가설검증 및 분석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증거자료의 분석 ● 설정된 가설의 검증 활동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검증 및 분석활동을 통한 결론 도출 ● 도출된 결론의 정리
사후 학습	발표 및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발표 및 토론
	학습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및 정리

본 학습모형은 앞에서 제시했던 '역사의 다양한 뜻 탐구활동'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다른 점은 1차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전학습>, <본학습>, <사후학습> 3단계로 나눔으로써 사전학습과 사후학습의 비중을 높여 본시학습의 내실을 기할 수 있게 구조화되어 있다.

2) 실마리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추론하는 역사탐정 활동의 실제

(가) '실마리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추론하는 역사탐정 활동' 교수학습과정안

시간 활용	재량활동	수업형태	탐구 학습	차시	1-3/12
본시 주제	우리 모두 역사 탐정이 되자	학습자료	교사 : PPT, OHP 아동 : 사회교과서, 사회과탐구		
학습 목표	● 실마리를 분석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사전학습 ◆

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동기유발	● 설록 흠즈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서를 찾아서 사건의	10	학습지

인식		진말을 밝히는 과정을 제시한다. -간단한 단서를 주어 아동들로 하여금 사건을 해결하게 하는 학습지를 해결하는 것도 좋다.-		
	문제인식	◎ 역사학습에 있어서도 작은 단서를 갖고 역사적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학습문제	● 실마리를 분석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추론해봅시다.		판서
주제 선정	주제선정	1. 모둠별 주제 선정 ① 1모둠 : 고인돌 ② 2모둠 : 단군신화 ③ 3모둠 : 고인돌 ④ 4모둠 : 단군신화 2) 모둠별 주제에 따른 조사·수집방안 협의 ① 모둠협의를 통해 조사·수집할 방안을 협의. ② 문제해결을 위한 주제의 분석 및 세부주제설정. ③ 모둠원끼리의 역할분담 및 주제발표형태 결정	10	
가설 설정	가설설정	◎ 모둠별로 각각의 주제 맞는 가설을 설정한다.	5	모둠별로 가설 설정
자료 수집 및 문제탐색활동	문제탐색	◎ 조사·수집활동 전개 ① 조사·수집 시 사회과 교과서, 사회과 탐구, 인터넷 자료, 향토지, 신문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조사 수집한다. ② 조사보고서 작성과 주제 발표를 위해 내용을 정리한다. ③ 조사를 끝내지 못한 경우는 과제의 형태로 해서 방과 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10	

본학습 ◆

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가설검증 및 문제분석활동	가설검증	◎ 각 모둠별로 설정한 가설 증명하기 활동 -모둠별로 세운 가설과 탐색한 결과가 일치하는지 토의하기 -가설과 탐색한 결과가 일치하다면 그에 대한 설명과 이유를 제시하고, 가설과 탐색한 결과가 다르다면 그에 대한 설명과 이유를 제시하기.	20	교사는 순회하면서 문제분석활동에 대한 지도
결론 및 일반화	결론	◎ 각 모둠별로 분석한 내용을 비롯하여 도출된 결론을 보고서로 작성한다. ◎ 정리된 결론에 대해 발표자료(OHP, PPT 등)을 제작한다.	20	

사후학습 ◆

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발표 및 토론	발표 및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모둠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 모둠별 발표가 끝나면 질의 응답 및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25	활발한 토론 유도
학습 정리	학습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모둠별로 발표한 내용에 정리하고 상호평가한다. ◎ 각 모둠별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학습 정리를 한다. ◎ 실마리 분석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구성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15	

(나) '실마리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추론하는 역사탐정 활동'의 실제
 다음은 '실마리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추론하는 역사탐정 활동' 후 모둠별로 보고서 예시이다.

◎ 탐구문제
 우리는 단군신화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 가설설정
 단군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 자료의 수집 및 탐색 활동
 1. 단군신화의 내용
 '하느님(환인)의 아들인 환웅은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위해 바람, 구름, 비를 다스리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태백산에 내려왔다. 환웅은 이곳을 신사라 이름 짓고, 스스로를 천왕이라 하면서 사람들을 다스렸다.
 그러던 중, 호랑이와 곰이 찾아와 사람이 되기를 원하므로 환웅은 이들에게 마늘과 쑥을 주며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호랑이는 이를 이겨내지 못했으나 곰은 잘 참아내어 마침내 여인이 되었다. 환웅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분이 바로 단군 왕검이다.
 단군 왕검은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하였다.

'삼국유사' 중에서
 6-1 사회교과서 p.7 인용

2. 6-1 사회과 탐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단군 신화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 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환웅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왔을까요? →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새로운 지배자가 다른 곳으로 이주해 왔다는 것을 뜻한다.

② 환웅은 왜 바람과, 구름, 비를 다스리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왔을까요? → 바람, 구름, 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당시에는 농업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훌륭한 지배자는 농

사가 잘되게 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한 것이다.

③ 여기서 '곰' 과 '호랑이' 는 곰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따라서 곰을 숭배하는 사람과 환웅이 거느리고 온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 가설 검증 및 분석 활동

①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이 바람, 구름, 비를 다스리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와서 곰이 사람으로 변한 여신과 결혼을 하여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21세기 최첨단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 신화나 다른 나라 건국신화의 경우를 보더라도 내용을 과장하는 것은 상당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신화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과거인들이 왜 그렇게 기록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② '하느님(환신)의 아들인 환웅은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위해 바람, 구름, 비를 다스리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태백산에 내려왔다. 환웅은 이곳을 신사라 이름 짓고, 스스로를 천왕이라 하면서 사람들을 다스렸다.

여기서 환웅은 한반도에 새롭게 나타난 이주민으로 볼 수 있다.

바람, 구름, 비를 다스리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왔다는 것은 농사를 잘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농사를 중시여기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그러던 중, 호랑이와 곰이 찾아와 사람이 되기를 원하므로 환웅은 이들에게 마늘과 썩을 주며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호랑이는 이를 이겨내지 못했으나 곰은 잘 참아내어 마침내 여신이 되었다. 환웅은 이 여신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분이 바로 단군 왕검이다.

④ 단군왕검이란 것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기 보다는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임금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 당시 지도자는 왕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단군신화에 대해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 단군왕검의 나이가 1908세에 이른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1908세까지 산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힘든 것으로 볼 때 고조선이란 국가가 1908년 정도 유지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의문점 : 기원전 2333년(지금으로부터 4300여년전)에 과연 고조선이 건국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무렵 우리나라는 신석기 시대(제주도에서 신석기 유적 중 최근에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북촌리 유적인데 기원전 3000년전의 것으로 보고 있고, 제주도에서 가청 소래된 청동기 유적으로 보는 것이 상모리 유적인데 기원전 600년전의 것으로 보고 있다)인데 그 당시 세계 대부분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우리나라만 신석기에 나라를 세운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 결론

★ 결론

단군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을 추측하게 해주는 소중한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화라는 것이 과장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그리스로마신화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단군신화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새롭게 한반도로 이주한 사람들과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 하나의 나라를 세운 것이 고조선이다.
2. 고조선은 농업을 매우 중요시했던 나라였다고 볼 수 있다.
3. 고조선이 세워질 당시 사람들은 동물을 숭배하는 신앙이 있었다.
4. 고조선의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외에도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하였다.

◎ 탐구문제

고인돌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상은 무엇인가?

◎ 가설 설정

1. 고인돌은 강한 정치적 권력을 가진 우두머리의 무덤일 것이다.
2. 고인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나누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자료의 수집 및 탐색 활동

1. 고인돌의 뜻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는 고인돌은 땅속이나 당위에 돌로 시신을 안치할 석실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한 뚜껑돌을 올려놓아 만든 무덤이다.

2. 고인돌의 제작과정

① 큰 돌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 미리 판 구덩이 속에 넣는다. 그리고 이 받침돌이 흔들리지 않게 작은 돌로 옆을 가득 채워 튼튼히 다진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받침돌 2개 또는 4개를 똑같은 높이로 세우고 나쳐 받침돌이 파문힐 만큼 흙으로 덮어서 작은 언덕을 만든다.

② 언덕의 경사를 따라 둥근 나무를 밑에 깔고 뚜껑돌을 끌어올린다. 옛날에는 기중기 같은 중장비가 없었으므로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했다. 밑고 끌어서 올린 뚜껑돌이 받침돌 위에 놓인 다음 받침돌까지 파문었던 흙을 치우면 고인돌이 완성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채석 기술, 건축 기술의 전문가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가설 검증 및 분석 활동

<가설 1> 고인돌은 강한 정치적 권력을 가진 우두머리의 무덤일 것이다에 대한 분석 및 검증 활동

→ 큰 돌을 움직여 거대한 고인돌을 만들려면 한 두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십 명·수백 명이 필요하므로 고인돌의 주인은 마을의 구성원 중 높은 지위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 2> 고인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나누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에 대한 분석 및 검증 활동

→ 청동기 시대 이후로는 농사 기술과 농기구가 발달함에 따라 물자의 생산량이 증가하여 남는 물자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남는 물자들을 똑같이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니라 강한 자는 더욱 많이, 약한 자는 적게 가짐으로써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가난함과 부유함은 날이 갈수록 격차가 커져감으로써 강한 자는 더욱 강한 힘을 갖게 되어 지배자가 되어 갔다. 고인돌은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진 지배자의 무덤으로써 고인돌의 등장은 사회가 불평등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 결론

★ 결론

<결론 1> 이렇게 거대한 돌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는데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된다는 것은 마을에서 높은 지위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고인돌은 강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의 무덤이라는 가설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 2> 강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가 등장했다는 것은 결국 지배를 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자가 나타났고 결국 계급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기존의 역사서술을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기 활동을 통한 역사적 사고력 기르기 활동 전개 <다른 눈으로 역사를 읽어보자>

가) 목적

기존의 역사서술을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기 활동은 역사책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활동을 통해 아동들은 단순히 역사적 지식의 수용자가 아니라 역사적 지식 생산자의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아동들이 나름대로의 가설을 설정하고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역사서술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데 본 활동의 목적이 있다.

나) 기존의 역사서술을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기 활동의 전개

1) 학습모형

<표 7> ‘다른 눈으로 역사 읽어 보기’ 학습모형

사전 학습	문제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상황 제시 ● 학습 문제 인식
	주제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주제 선정
	가설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가설 탐색 ● 가설 설정
	자료수집 및 문제탐색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의 수집 ●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활동 실시
본학 습	가설검증 및 분석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증거자료의 분석 ● 설정된 가설의 검증 활동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검증 및 분석활동을 통한 결론 도출 ● 도출된 결론의 정리
사후 학습	발표 및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발표 및 토론
	학습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및 정리

‘실마리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추론하는 역사탐정활동 학습모형’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2) 기존의 역사서술을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기 활동의 실제

(가) 기존의 역사서술을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기 활동 교수학습과정안

시간 활용	재량활동	수업형태	탐구 학습	차시	7-9/12
본시 주제	다른 눈으로 역사를 읽어보자	학습자료	교사 : PPT, OHP 아동 : 사회교과서, 사회과탐구		
학습 목표	● 역사적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사전학습 ◆

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동기유발	● 광해군과 관련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광해군에 대해 나름대로의 역사적 평가를 서로 발표하면서 의견을 교류한다.	10	
	문제인식	●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학습문제	● 역사적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분석해봅시다.		
주제 선정	주제선정	1. 모둠별 주제 선정 ① 1모둠 : 신라의 삼국통일 ② 2모둠 : 조선후기의 모내기법의 도입 ③ 3모둠 : 최승로의 시무28조의 건의 ④ 4모둠 : 신라의 삼국통일	10	
		2) 모둠별 주제에 따른 조사·수집방안 협의 ① 모둠협의를 통해 조사·수집할 방안을 협의. ② 문제해결을 위한 주제의 분석 및 세부주제설정. ③ 모둠원끼리의 역할분담 및 주제발표형태 결정		
가설 설정	가설설정	● 모둠별로 각각의 주제 맞는 가설을 설정한다.	5	모둠별로 가설 설정
자료 수집 및 문제탐 색활동	문제탐색	● 조사·수집활동 전개 ① 조사·수집 시 사회과 교과서, 사회과 탐구, 인터넷 자료, 향토지, 신문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조사 수집한다. ② 조사보고서 작성과 주제 발표를 위해 내용을 정리한다. ③ 조사를 끝내지 못한 경우는 과제의 형태로 해서 방과 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15	

본학습 ◆

단계	학습의 호름	교수·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가설검 증 및 문제분 석활동	가설검증	◎ 각 모둠별로 설정한 가설 증명하기 활동 - 모둠별로 세운 가설과 탐색한 결과가 일치하는지 토의하기 - 가설과 탐색한 결과가 일치하다면 그에 대한 설명과 이유를 제 시하고, 가설과 탐색한 결과가 다르다면 그에 대한 설명과 이유 를 제시하기.	20	교사는 순 회하면서 문제분석 활동에 대 한 지도
결론 및 일반화	결론	◎ 각 모둠별로 분석한 내용을 비롯하여 도출된 결론을 보고서로 작성한다. ◎ 정리된 결론에 대해 발표자료(OHP, PPT 등)을 제작한다.	20	

사후학습 ◆

단계	학습의 호름	교수·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발표 및 토론	발표 및 토론	◎ 각 모둠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 모둠별 발표가 끝나면 질의 응답 및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25	활발한 토 론 유도
학습 정리	학습정리	◎ 각 모둠별로 발표한 내용에 정리하고 상호평가한다. ◎ 각 모둠별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학습 정리를 한다. ◎ 실마리 분석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구성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15	

(2) 기존의 역사서술을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기 활동의 실제

다음은 기존의 역사서술을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기 활동 후 모둠별로 보고서 예시이다.

<p>◎ 탐구문제 신라의 삼국통일을 다르게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p> <p>◎ 가설설정 1. 신라의 삼국통일은 서로 나뉘어 살았던 사람들이 한 국가 안에서 같은 민족으로 통일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2.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케 한 것을 반민족행위라고 볼 수 없다.</p> <p>◎ 자료의 수집 및 탐색 활동 ● 신라의 삼국통일의 과정 ① 신라 진흥왕은 551년 백제와 함께 고구려의 한강유역을 침략하여 한강 상류 지역은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은 백제가 점령하게 된다. 그러나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을 깨고 기습적으로 백제의 한강 하류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전부 차지하게 된다. 한강 유역 점령은 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얻은 것 외</p>

에도 서해를 거쳐 직접 중국과 통할 수 있는 문호를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신라에게 있어서는 매우 뜻 깊은 것이었다.② 한강 유역의 점령으로 인해 신라 역사상 최대의 판도를 누리게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이때부터 삼국통일을 달성하게 되는 660년대까지 꼭 한 세기 동안 영토회복을 꿈꾸는 고구려 · 백제 두 나라로부터 끊임없이 양면 공격을 받게 되어 국가적인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으로 고립에 빠진 신라는 당나라와의 연결을 시도하였고 마침내 두 나라는 연합군을 형성하였다.

③ 660년 나당 연합군은 백제를 공격하여 수도를 함락시키고, 668년에는 오랜 천란과 연개소문의 사망 후 내분으로 피폐해진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그간 협력해 오던 신라와 당의 갈등은 영토 귀속문제로 전면에서 표출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라는 백제 · 고구려 유민을 포섭하여 함께 당나라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마침내 현재의 대동강과 원산만을 잇는 선의 남쪽을 차지하여 676년에 삼국의 통일을 이룩하였다.

◎ 가설 검증 및 분석 활동

<가설 1. 신라의 삼국통일은 서로 나뉘어 살았던 사람들이 한 국가 안에서 같은 민족으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에 대한 분석 및 검증 활동

① 신라의 삼국통일은 기록이 정확하다면 676년 지금으로부터 1330여년 전에 이루어졌다. 그 당시 삼국의 입장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신라의 삼국 통일 이전에는 한반도 한 나라로 통일되어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의 국가를 하나의 민족이라고 생각했을 리는 없을 것 같다. 그냥 옆에 있는 나라이고 수시로 전쟁을 벌였던 라이벌로 여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 당시의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을 맺었다가 전쟁을 하기도 하고 다시 동맹을 맺기도 하였다. 결국 고구려, 백제, 신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살아남기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철폐하여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다고 본다면, 신라의 삼국통일은 서로 나뉘어 살았던 사람들이 한 국가 안에서 같은 민족으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봐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가설 2.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케 한 것을 반민족행위라고 볼 수 없다>에 대한 분석 및 검증 활동

① 고구려, 신라, 백제가 목숨을 건 전쟁을 벌인 그 당시에는 이 세 나라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가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의 삼국통일 이전에는 한반도 한 나라로 통일되어 세 나라 사람이 같이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요즘 우리나라와 북한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세 나라 모두 상대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는 절박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②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하자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을 맺어 신라를 공격하려고 할 때 신라는 이에 맞서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 백제와 대항하게 된다. 당나라와 동맹을 맺은 것도 어찌 보면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든다.

◎ 결론

1. 신라의 삼국통일은 한반도 같이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 국가 안에서 같은 민족으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2.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 한 나라를 이루어 살아 본적이 없는 것을 생각할 때 서로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라이벌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케 한 것을 반민족행위라고 볼 수 없다.

◎ 탐구문제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통해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은 무엇인가?

◎ 가설설정

1.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당시 사회 지도층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많이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2.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통해 당시 불교중심 국가였던 고려였지만 정치는 유교를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통해 당시 고려사회의 문계침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 자료의 수집 및 탐색 활동

1. 최승로의 시무 28조란?

- ① 시무 28조란 고려시대 재상이었던 최승로가 제6대 왕인 철종에게 나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28가지를 제시한 것을 말한다.
- ② 본래 28조였으나 지금 내용이 알려진 것은 22조 뿐이다. 주요 내용은 불교의 폐단과 사회문제, 민생문제의 개선책을 제시하였으며, 군주의 도리를 강조하였다.

2.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제시했을 때의 시대적 배경

- ① 고려시대 초기에도 호족들의 힘이 강하여 중앙 정부가 호족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 고려 태조 왕건이 지방에서 힘이 강한 호족들의 자제를 왕비로 삼은 것도 호족들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다.
- ② 고려의 정치 및 사회제도가 완전히 절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3. 시무 28조의 주요 내용 ● 임금은 체통을 지켜야 한다.

지방 호족들이 백성을 괴롭히는 사례가 많으니, 관리를 파견하여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

관리의 의복과 백성의 의복을 달리 해야 한다.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신 간의 도리는 중국의 것을 따른다.

국가의 큰 행사는 백성의 부담이 크므로 삼간다.

● 임금이 성실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아랫사람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 큰 위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관리를 공정히 선발한다.

● 궁중에는 꼭 필요한 만큼의 노비와 말만 둔다.

● 양인과 천인의 구별을 뚜렷이 하여 미천한 자가 윗사람을 모욕하지 못하게 한다.

사원의 고리대업을 금지시켜 신민들의 피해를 없앤다.

더 이상의 사원건축을 막아 백성들의 부역부담을 줄인다

사회과탐구 p.32 인용

◎ 가설 검증 및 분석 활동

<가설 1.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당시 사회 지도층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많이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에 대한 분석 및 검증 활동

- ① 관리의 의복과 백성의 의복을 달리 해야 한다. → 관리와 백성이 입을 옷을 구별하려고 하는 점으로 보아 관리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들은 일반 백성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 ②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신 간의 도리는 중국의 것을 따른다. → 도리라는 것은 요즘 말하는 예절이라

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람간의 기본적인 예절조차도 중국의 것을 따르라고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중국에 많은 것을 의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③ 양인과 천인의 구별을 뚜렷이 하여 미천한 자가 헛사람을 모욕하지 못하게 한다. 궁중에는 꼭 필요한 만큼의 노비와 말만 둔다. → 고려시대 는 철저한 양인과 천인이 존재하는 철저한 계급 중심 사회였던 것 같다.

<가설 2.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통해 당시 불교중심 국가였던 고려였지만 청치는 유교를 중심으로 나라 를 운영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분석 및 검증 활동

- ① 국가의 큰 행사는 백성의 부담이 크므로 삼간다. → 이 내용인 경우 시무 28조 원문에 보면 국가의 큰 행사하는 것이 연등회와 팔관회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등회와 팔관회는 결국 불교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볼 때 이는 불교를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② 더 이상의 사원건축을 막아 백성들의 부역부담을 줄인다. → 절이 많이 세워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불교가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가설 3.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통해 당시 고려사회의 문계침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분석 및 검증 활동

- ① 사원의 고리대업을 금지시켜 인민들의 피해를 없앤다. → 고리대업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이득을 보는 것으로 볼 때 절에 있는 승려들이 그 당시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이득을 보는 행위를 할 정도로 타락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지방 호족들이 백성을 괴롭히는 사례가 많으니, 관리를 파견하여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 → 고려 시대 때는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힘이 강해서 일반 백성들이 호족들에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 지방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중앙 정부에서 임명한 관리를 파견시켜 중앙 정부의 힘을 강하게 하려는 하나의 계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결론

- <결론 1> 최승로의 시무 28조에는 당시 사회 지도층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많이 반영하여 자신들의 생각 대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였다.
- <결론 2>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통해 당시 불교중심 국가였던 고려였지만 불교를 견제하고 유교를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려 하는 의도가 많이 있다.
- <결론 3>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통해서 볼 때 당시 불교와 호족들의 횡포로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IV. 결론

역사에 대한 생각이나 관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져왔다. 역사를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했던 19세기 초의 랑케, 드로이젠의 역사관으로부터 역사를 하나의 담론으로 간주하고 역사를 더 이상 문학과 의 경계를 구분 짓는 것을 공허하게 만들고 있는 포스트모던 역사이론에 이르기까지 역사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관점들이 나타나왔다. 역사에 대한 다양한 이

론 중에서 본고에서는 E.H.Carr의 역사인식과 신문화사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역사학습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먼저 E.H.Carr는 역사를 역사가의 해석으로 간주함으로써 정형화되고 화석화된 역사사실에 대한 강조 대신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역사가들의 다양한 해석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를 역사교육에 적용해 본다면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암기하고 습득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 해석하는 것처럼 학생들도 자신의 관점에 따라 해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중시해야함을 의미한다. 즉 역사교육에 있어서 역사적 사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으로써 기존의 암기위주의 역사교육을 탈피할 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신문화사적 접근방법은 기존의 역사관을 부정하고 해체하는 포스트모던 역사이론과 달리 기존의 역사관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기존의 역사관이 거대 담론으로 서술되어 있고, 역사적 해석에 대해 단순함을 갖고 있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로부터의 구현, 역사적 해석의 다양성, 문화로 보는 역사 등 기존의 역사관 자체의 경직성을 신문화사가가 상당 부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이런 대안적 성격을 갖고 있는 신문화사의 적용은 초등학교 역사교육에도 바람직한 결과를 양산할 수 있다. 신문화사적 접근을 초등학교 역사교육에 적용시킬 경우 현재 초등학교 역사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암기위주의 수동적인 역사학습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신문화사적인 접근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역사적 해석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고, 역사를 보는 시각의 다변화를 통해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E.H.Carr의 역사인식과 신문화사적 접근을 중심으로 다음의 역사학습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첫째, E.H.Carr와 신문화사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역사의 다양한 뜻 탐구활동’을 통해 ‘역사’라는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역사관의 올바른 정립을 시도하였다. 신문화사적 역사관의 모태가 된 E.H.Carr의 역사관 분석을 통한 역사의 다양한 뜻 탐구활동을 통해 역사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력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신문화사의 역사관 분석을 통한 역사의 다양한 뜻 탐구활동에서는 E.H.Carr의 역사관에서 학습한 내용을 더욱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역사개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문화사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한 역사학습을 통해서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하고자 하였다. 역사적 단서의 분석을 통한 역사적 사실을 추론하는 활동, 미시적 역사로의 접근,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역사적 상상력을 활용한 역사 서술하기 활동 등 단순한 역사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역사를 보는 시각을 넓혀주었으며, 궁극적으로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목적은 시간 속에 있는 인간과 사회,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과거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생활했고, 현재와는 어떤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행동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성찰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역사적 사고를 바탕으로 과거 사실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해보고 과거 인간과 사회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자기 자신과 나아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성찰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 문헌

- 곽차석·류음 (2002). *미시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 김기봉 (2000).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 푸른역사.
- 김기봉 외 (2002).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학*, 푸른역사.
- 김한중 외 (2005).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함께.
- 김한중 (2010). 역사교육 개념어의 용례 검토 -역사적 사고, 역사해석, 역사인식, 역사의식-, *역사교육* 제113호
- 김효철 (2007), *포스트모던 역사이론을 중심으로 한 역사학습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제주교육대학교.
- 양호환 외 (2001).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사
- 송상헌 외 (2009). *역사교육의 이론*, 책과함께.
- 안병직 외(2001). *오늘의 역사학*, 한겨레신문사.
- 조한욱 (2002).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책세상.
- David Cannadine.(2005). *굿바이 E.H.카*[What is History Now]. (문화사학회 역), 푸른역사.
- E.H.Carr.(1996).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 (김승일 역), 범우사.
- Keith Jenkins.(1999).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Rethinking History]. (최용찬 역), 해안.
- Linda S. Levstick, Keith C. Barton.(2005). *Doing history*(3rd Ed). Routledge.
- Sam Wineburg.(2001). *Historical thinking and other unnatural act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History Learning Method for the Improvement of Historical Thinking : Based on E.H. Carr's Historical Awareness and New Cultural History

Kim Hyo-Chul(Shinjeju Elementary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 history learning method based on E.H. Carr's historical awareness and new cultural history in a bid to boost the historical think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E.H. Carr criticized Ranke's historical awareness who put emphasis on the objectivity of history on the ground that the mission of a historian would be to show what the past was like, and he stressed that history refers to how a historian interprets the facts in the past. The approach of new cultural history enlarged E.H. Carr's historical awareness and places emphasis on the multidimensionality and diversity of history. That is, it values the diverse interpretation of history and the history of not only the ruling parties but disadvantaged people such as the oppressed classes and women. The two approaches give a clue how history education can be conducted by focusing on thinking faculty instead of merely having learners learn historical facts by rote.

The argument that history is the very interpretation of historians implies that history learning is not simply to memorize and check historical facts. Memorizing is necessary when one learns about the universal truth or facts, but history learning should be regarded as a historical thinking process that students construct history from their own perspective based on the facts of the past and the interpretations of historians. Constructing history based on various contemporary situations and the ideas and behaviors of contemporary people and finding a meaning behind the scene will be a good opportunity for students to foster their historical thinking faculty. The development of a history learning method based on E.H. Carr's historical awareness and new cultural history will be worth doing in that the two approaches makes it possible to research man and society to take a substantial approach to human nature, which is the essence of historical studies and history education.

Key words : E.H.Carr, New Cultural History, Historical Thinking